

금요 양성 2026년 5월 15일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

가톨릭과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정체성 (3부중 1부)

[개인 양성을 위해서는 각 부분을 따로 다루고, 영속 양성을 위해서는 3부 전체를 같이 제시하고 토론할 때 유용할 것이다]

FUN 지침서에 있는 Anne Mulqueen의 재속프란치스칸의 정체성을 참고하십시오.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창조하신 각자는 고유하고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모든 이의 귀에 가장 달콤한 소리중의 하나가 그들 이름의 소리이다.”

신앙, 가치, 열정,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엮어있는 사람들, 우리와 연관된 것들과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일반적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Anne이 제공하는 몇가지 질문들을 여기에 제시한다.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해 볼 수 있다.

- “나는 누구인가?” 하느님은 우리에게 대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 우리는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재능을 사용한다.
-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와 말속에 존재하심을 선포해야 한다.
-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는 하느님께 속해 있고 프란치스칸 가족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가톨릭 그리스도인으로서 – 세례를 통하여:

-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다.
-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성령의 선물 (은사)을 받는다.
-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받는다.
- 우리는 교회 사명의 증거자와 도구로 나아간다.
- 우리는 영적인 희생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활동을 하느님께 봉헌한다.
- 우리는 예언적인 봉사로 초대되었다.
-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 우리는 충실히 복음을 산다.
- 우리는 평화, 기쁨, 사랑, 정의를 이루시는 하느님의 방식을 세상에 증거한다.
- 우리는 하느님 나라와 그 사명에 있어서 한 자리를 부여 받았다.

가톨릭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재속프란치스칸의 표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음 연재에 계속됨)

토론이나 저널에 답을 쓰기 위한 질문

+ 위의 첫번째 부분을 읽고 생각한 후 아래의 4가지 질문에 답해보시오.

+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확실치 않으면 찾아보시오) 당신은 어떤 은사에 강합니까?

+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중 어떤 열매가 당신 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까?

+ 가톨릭 그리스도인에 대해 위에 제시된 항목에서, 당신은 가톨릭으로서의 헌신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가지 예를 들어보시오.